• 발간자료

• 우리금융지주_BUY/1.8만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8만원으로 29% 상향. 이익추정 상향에 따른 BPS 증가 반영, 목표 PBR 0.53x. 21E PBR 0.37x, ROE 10.4%(+4.5%p YoY). 연간 순이익 21E 2.5조원, 22E 2.7조원으로 각 10.3%, 14.6% 상향. 21E 원화대출 성장률 8%, NIM 21E 1.61%(+4bp YoY), 22E 1.64%로 상향, 수수료이익 상향조정, 그룹 대손율 21E 15b, 22E 19bp로 하향조정. 현재 누적기준 대손율 13bp, 전분기 환입 610억원 제외해도 16bp 수준이라 올해와 내년 모두 공격적이지 않은 추정치. 11월 예보지분 10% 매각작업 감안해도 놓치기엔 아까운 종목. 1) 금년 기말 배당수익률 6.1%, 2) ROE 10.4%, 증가폭 4.5%p로 가장 큼. 배당성향 19A 27% 회귀 시 21E DPS 950원, 기말 DPS 800원. 민영화 작업은 11/22 종료 예정으로 최소입찰수량 1% 이상, 장기투자자 확보 가능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 **(지주/은행 김한이)**

• 섹터업데이트

• 컨슈머 (Overweight): 의류업종 동절기 성수기 진입. 4Q20 3차확산 영향으로 FW 복종 판매 부진했음. 기저 부담 낮은 가운데, 날씨까지 도와준다면 성수기 효과 크게 누릴 수 있을 전망. 9월~10월초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모멘텀 약했으나, 10월 둘째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아웃도어 복종부터 판매 급증. 지난 2년간 간절기 플리스가 유행을 이끌었으나, 올해는 한겨울용 플리스, 숏패딩, 리버서블 패딩 등 고단가 아이템 카테고리 확대 트렌드. 외형 성장과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 아웃도어 브랜드 선호. F&F(디스커버리), 더네이쳐홀딩스(내셔널지오그래픽) 해당. 백화점업종 중 현대백화점 수혜 예상 **(컨슈머 배송이)**

• 인터넷·게임 (Overweight): 국내 규제는 미국 대비 아직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단편적 규제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업체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은 아님. 다만 당사는 국내 규제의 현재가 아닌 향후 방향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미국과 같은 포괄적 방향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봄, 미국 반독점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을 지향하듯이, 최근 국내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모빌리티와 웹툰/웹소설 중심으로 공급자에 대한 적정 테이크 레이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이 이와 일맥상통. 또한 테크핀에 대한 정부 스탠스가 과거 육성 정책에서 최근 규제를 기점으로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투자자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인터넷/게임 김진구)**

• 유통·이커머스 (Overweight): 정부,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발표.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등 모든시설의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 제외). 교육부 또한 이달말까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예정. 거리두기 완화와 학교 전면 등교가 예상됨. 유동인구 확대에 따른 구매건수 상승 기대 가능한 편의점 업체의 기존점 성장률 개선을 전망. 9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 전망(GS리테일 3Q21E 기존점 성장률 3%). 여기에 과거 12개월간 YoY 70%의 거래액 증가한 온라인 음식서비스 부문의 21년 8월 거래액 증가율 44%를 기록. 온라인 음식서비스 부문의 거래액 증가율 피크아웃을 전망. 편의점 업체의 식품매출 증가율 개선요인이라고 생각. 부정적인 모멘텀기 반영한 밸류에이션 (현재 12MF P/E 12.6배 vs. 상장 후 평균 17배) **(유통/이커머스 김진우)**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 · 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비율

BUY :	90.7%	HOLD :	9.3%	SELL :	0.0%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50%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이상~ +15%미만.
- SUSPENDED: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졌을 경우 잠정적으로 분석 중단. 목표가는 미제시.

당사의 투자의견 중 STRONG BUY,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REDUCE는 "매도"에 해당.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